

녹차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이 중 응*

1. 서론
2. 녹차산업의 실태
3. 녹차산업의 당면과제
4.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5. 결론

1. 서론

녹차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 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생활 차로서 차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녹차 관련 산업의 발전은 극히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녹차 관련 산업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된 요인은 식생활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인은 녹차산업의 독과점적인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가격이 높아 일반 소비자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수요 창출은 물론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녹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비 증대에 저해

요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수요 확대를 통한 차 문화의 정착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차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녹차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2. 녹차산업의 실태

녹차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78년 이후부터라 하겠다. 물론 그 이전의 1960년대에는 생엽을 발효한 홍차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일시적으로 홍차 생산이 크게 증가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홍차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은 유사품 출현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기호를 커피로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1969년 정부의 농특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성을 중심으로 차밭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수요 감소로 소기

* 연구위원

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폐다윈의 속출은 물론 다윈의 방치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부터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기호음료에서 건강음료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생산기반 취약으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최근 부족분은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1. 녹차 생산 현황

녹차 재배면적은 1980년 약 540ha에서 1996년에는 829ha로 약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엽 채취량은 같은 기간에 약 105톤에서 약 3,156톤으로 무려 3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위당 수확량 증가가 현저함을 알 수가 있다(표 1).

한편 채취한 생엽은 제조 방법에 따라 녹차와 홍차로 구분되나 녹차와 홍차의 생산량 비중을 가공공장의 가공용 비율로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홍차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녹차의 비중이 증가해 최근에는 녹차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생엽이 녹차로 가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1980년에는 채취량의 전량에 가까운 98.1%가 가공공장에서 수매 가공하고 있으나 1996년에는 채취량에 대한 수매가공 비중이 3.6%에 지나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가공공장이 원료생엽 조달을 자체 생산에 의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산농가 역시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있어 생엽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극히 적음을 알 수가 있다.

녹차 재배농가는 1985년 92호에서 1996년에는 1,171호로 10년 사이에 무려 1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녹차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에 449ha에서 826ha로 약 1.8배의 증가에 지나지 않아 호당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에 4.9ha에서 0.7ha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극히 영세함을 알 수가 있다(표 2). 농가호당 생산량 역시 재배면적 증가와 단위당 수확량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에 생엽 생산량은 119톤에서 840톤으로 약 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재배농가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에 13배로 현저하게 높아 호당 생산량은 1.29톤에서 0.71톤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표 1 녹차 재배면적 및 생엽 채취량

| 연 도 | 재배면적 (ha) | 채취량(A) (톤) | 10a당 수확량 (kg) | 수 매 실 적(톤) | | | (B)/(A) | (C)/(B) | (D)/(B) |
|------|--------------|---------------|---------------------|------------|------------|------------|---------|---------|---------|
| | | | | 합 계 (B) | 녹 차 (C) | 홍 차 (D) | | | |
| 1980 | 540 | 105 | 19.4 | 103 | 23 | 80 | 98.1 | 22.3 | 77.7 |
| 1985 | 449 | 476 | 106.0 | 305 | 231 | 74 | 64.1 | 75.7 | 24.3 |
| 1990 | 448 | 1,480 | 330.4 | 303 | 203 | 100 | 20.5 | 67.0 | 33.0 |
| 1991 | 507 | 2,820 | 556.2 | 965 | 560 | 405 | 34.2 | 58.0 | 42.0 |
| 1992 | 597 | 3,325 | 557.0 | 775 | 330 | 445 | 23.3 | 42.6 | 57.4 |
| 1993 | 642 | 3,085 | 480.5 | 795 | 495 | 300 | 25.8 | 62.3 | 37.7 |
| 1994 | 601 | 3,645 | 606.5 | 96 | 68 | 28 | 2.6 | 70.8 | 29.2 |
| 1995 | 715 | 2,266 | 316.9 | 486 | 447 | 39 | 21.5 | 92.0 | 8.0 |
| 1996 | 829 | 3,156 | 380.7 | 114 | 103 | 11 | 3.6 | 90.4 | 9.6 |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연도

표 2 녹차 생산 농가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추이

| | | 1985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재배농가(호) | | 92 | 242 | 433 | 433 | 739 | 1,284 | 1,310 | 1,171 |
| 재배면적(ha) | | 449 | 448 | 507 | 597 | 642 | 679 | 790 | 826 |
| 생산량(M _T) | | 119 | 296 | 564 | 665 | 617 | 767 | 698 | 840 |
| 호당 면적 (ha) | 평 균 | 4.88 | 1.84 | 1.17 | 1.38 | 0.87 | 0.53 | 0.60 | 0.71 |
| | 직영농가 | - | - | - | - | - | 16.55 | 18.61 | 22.41 |
| | 일반농가 | - | - | - | - | - | 0.28 | 0.32 | 0.39 |
| 호당 생산 (톤) | 평 균 | 1.29 | 1.22 | 1.30 | 1.54 | 0.84 | 0.60 | 0.53 | 0.71 |
| | 직영농가 | - | - | - | - | - | 31.48 | 26.51 | 40.77 |
| | 일반농가 | - | - | - | - | - | 0.11 | 0.13 | 0.13 |
| 10a 수량 (kg) | 평 균 | 26.5 | 66.1 | 130.3 | 111.4 | 96.1 | 113.0 | 87.2 | 101.7 |
| | 직영농가 | - | - | - | - | - | 190.0 | 142.0 | 182.0 |
| | 일반농가 | - | - | - | - | - | 39.0 | 40.0 | 33.0 |

주: 1994-1996년은 농림부 원예특작국 특작과 자료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연도

특히 녹차 재배농가의 영세성은 생엽생산과 가공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직영농가 보다 생엽을 주로 생산하면서 일부 생엽을 가내에서 수가공하거나 가공공장에 판매하는 일반 농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직영 농가의 호당 경

영규모와 생산량이 각각 105ha와 303톤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라남도 27.7ha에 40.7톤, 그리고 경상남도가 4.6ha에 3.4톤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3). 또한 단보당 수확량 역시 제주도가 289kg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라남도 150kg, 경상남도 75kg 순으로 지역

표 3 녹차 지역별 생산 실적, 1996

| 지 역 | 농 가 구 분 | 재배농가(호) | 재배면적 (ha) | 생 산 량 (M _T) | 농가호당 | | 단 수 (kg) |
|-------|------------|--------------|--------------|----------------------------|--------------|------------|-------------|
| | | | | | 재배면적 (ha) | 생산량 (톤) | |
| 전라남도 | 계 | 424 (36.2) | 465 (56.3) | 465 (55.3) | 1.10 | 1.10 | 100 |
| | 직영농가 | 9 [2.1] | 244 [52.5] | 366 [78.7] | 27.11 | 40.67 | 150 |
| | 일반농가 | 415 [97.9] | 221 [47.5] | 99 [21.3] | 0.53 | 0.24 | 45 |
| 경상남도 | 계 | 746 (63.7) | 256 (31.0) | 72 (8.6) | 0.34 | 0.10 | 28 |
| | 직영농가 | 7 [0.9] | 32 [12.5] | 24 [33.3] | 4.57 | 3.43 | 75 |
| | 일반농가 | 739 [99.1] | 224 [87.5] | 48 [66.7] | 0.30 | 0.07 | 21 |
| 제 주 도 | 계 | 1 (0.01) | 105 (12.7) | 303 (36.1) | 105.00 | 303.00 | 289 |
| | 직영농가 | 1 [100] | 105 [100] | 303 [100] | 105.00 | 303.00 | 289 |
| | 일반농가 | 0 [0] | 0 [0] | 0 [0] | 0.00 | 0.00 | - |
| 합 계 | 계 | 1,171 (100) | 826 (100) | 840 (100) | 0.71 | 0.72 | 102 |
| | 직영농가 | 17 [1.5] | 381 [46.1] | 693 [82.5] | 22.41 | 40.77 | 182 |
| | 일반농가 | 1,154 [98.5] | 445 [53.9] | 147 [17.5] | 0.39 | 0.13 | 33 |

주: ()내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지역별 구성비.

[]내의 수치는 지역별 직영 농가와 일반 농가의 구성비.

자료: 농림부, 원예특작국 특작과.

에 따라 경영규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생산성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가 형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반 농가에 비해서 직영 농가의 경영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생산성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 농가간의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녹차 소비 및 수급 현황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소비 수준의 향상과 기호음료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차류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녹차는 지금까지 기호음료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항암 효과가 큰 건강음료로 판단됨에 따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0.5g에서 1990년에는 10.9g, 그리고 1995년에는 20.0g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4). 그 결과 총 수요량은 1990년 468톤에서 1995년에는 888톤으로 약 1.9배 증가한데 비해서 총 공급량은 같은 기간에 431톤에서 772톤으로 수요량 증가율보

다 낮은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입량은 같은 기간에 37톤에서 116톤으로 무려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녹차 1인당 소비량 20g은 일본의 1인당 소비량 400g에 20분에 1에 지나지 않아 금후 1인당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입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차의 수출입 물량을 관세청의 무역통계 연보에 의하면 수입물량은 1981~85년 평균 2,548kg에서 1991~95년 평균 29,029kg으로 약 11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수출량은 같은 기간에 28,549kg에서 250,581kg으로 약 9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수입량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량 면에서는 수출량의 물량이 수입량의 무려 9배나 높아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

녹차의 수출입 물량을 국가별로 보면 수입의 경우 1990년대 이전은 일본과 홍콩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는 다소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서

표 4 녹차(홍차) 수급 추이

단위: 톤

| | 수요 | | | | 공급 | | | | 1인당 소비량(g) | | |
|------|-----|-----|-----|----|-----|-----|-----|-----|------------|-----|------|
| | 계 | 소비 | 이월 | 수출 | 계 | 이월 | 생산 | 수입 | 녹차 | 홍차 | 계 |
| 1980 | 21 | 21 | - | - | 21 | - | 21 | - | 0.1 | 0.4 | 0.5 |
| 1985 | 167 | 120 | 26 | 21 | 167 | 28 | 119 | 20 | 1.5 | 1.4 | 2.9 |
| 1990 | 468 | 281 | 187 | - | 468 | 135 | 296 | 37 | 8.7 | 2.2 | 10.9 |
| 1991 | 799 | 740 | 59 | - | 799 | 187 | 564 | 48 | 13.6 | 4.9 | 18.5 |
| 1992 | 805 | 755 | 50 | - | 805 | 59 | 665 | 81 | 11.2 | 6.9 | 18.5 |
| 1993 | 746 | 740 | 6 | - | 746 | 60 | 617 | 79 | - | - | 16.9 |
| 1994 | 776 | 703 | 73 | - | 776 | 6 | 729 | 41 | - | - | 17.5 |
| 1995 | 888 | 814 | 74 | - | 888 | 73 | 699 | 116 | - | - | 20.0 |

주: 수요란의 이월은 차년 이월이며, 공급란의 이월은 전년 이월임.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연도

표 5 녹차 수출·입 국별 물량

단위: kg, %

| | 수 입 | | | 수 출 | | |
|-------|-------------|-------------|--------------|--------------|---------------|---------------|
| | 1981~85 | 1986~90 | 1991~95 | 1981~85 | 1986~90 | 1991~95 |
| 일 본 | 1,298(50.9) | 6,059(67.2) | 13,213(45.5) | 15,605(54.7) | 25,423(11.9) | 79,664(31.8) |
| 홍 콩 | 1,250(49.1) | 979(10.9) | 701(2.4) | - | 50(-) | - |
| 스 위 스 | - | - | 196(0.7) | - | - | - |
| 중 국 | - | - | 12,314(42.4) | - | - | - |
| 영 국 | - | - | 2,600(9.0) | - | - | - |
| 싱 가 폴 | - | - | - | 800(2.8) | - | - |
| U.S.A | - | - | - | 12,144(42.5) | 170,308(79.8) | 130,896(52.2) |
| 기 타 | - | 1,970(21.9) | - | - | 17,558(8.3) | 40,021(16.0) |
| 합 계 | 2,548(100) | 9,008(100) | 29,029(100) | 28,549(100) | 213,339(100) | 250,581(100) |

주: ()의 수치는 구성비임.

기타 국가는 서독외 15개 국가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연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입선이 최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녹차 수출 역시 대상 국가는 최근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물량 면에서 볼 때 일본과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 녹차 가공 현황

녹차 가공은 영세한 가공업체와 기업형 가

공업체를 합친 직영 농가의 가공업체와 생엽 생산농가가 재래식으로 가내에서 수가공하는 일반 농가의 가내 수가공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다.

우선 녹차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직영 농가의 가공업체는 1996년 현재 약 17개 업체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 업체가 전체 생산량 840톤의 무려 85%인 712톤을 가공하고 있어

표 6 지역별 주요 가공 업체별 생산 실적, 1996

단위: 톤, %

| 전 라 남 도 | | | 경 상 남 도 | | |
|---------|-------|-------|---------|-------|-------|
| 업 체 명 | 생 산 량 | 구 성 비 | 업 체 명 | 생 산 량 | 구 성 비 |
| 대한다업 | 104.0 | 15.6 | 화계농협 | 4.5 | 9.9 |
| 보성작설 | 15.0 | 2.2 | 화계제다 | 2.0 | 4.4 |
| 동양다예 | 11.0 | 1.7 | 쌍계제다 | 4.0 | 8.8 |
| 꽃동산다 | 18.0 | 2.7 | 지리산제다 | 0.1 | 0.2 |
| 보성다업 | 18.0 | 2.7 | 삼진제다 | 1.4 | 3.1 |
| 장원산업 | 442.6 | 66.4 | 지리산치천지 | 1.8 | 4.0 |
| 대천식품 | 19.8 | 3.9 | 실로암제다 | 1.6 | 3.5 |
| 한국제다 | 38.3 | 5.7 | 지리산작설차 | 20.0 | 44.1 |
| | | | 덕산제다 | 10.0 | 22.0 |
| 계 | 666.7 | 100.0 | 계 | 45.4 | 100.0 |

주: 전라남도 장원산업의 생산량에는 제주도의 303톤이 포함됨.

자료: 농림부, 원예특작국 특작과.

대다수가 이들 가공업체에 의해서 가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 농가가 가내에서 수가공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5%에 지나지 않아 물량 면에서 극히 미미하다고 하겠다(표 6).

녹차 가공공장의 가공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제주도 포함)가 667톤으로 전체 가공량의 약 9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경상남도도 6%의 45톤에 지나지 않아 대다수의 녹차가 전라남도에서 가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업체별로는 전라남도의 경우 장원산업이 전체 생산량의 66.4%(제주도 포함)인 443톤을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서 대한다업 104톤과 한국제다 38톤 순으로 이들 3개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는 지리산 작살차와 덕산제다가 각각 20톤과 1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체당 생산규모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극히 작아 가공공장 역시 전라남도에 비해서 영세함을 알 수가 있다.

3. 녹차산업의 당면과제

녹차산업의 구조적 특징은 영세 소농에서 기업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가가 복합적

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녹차산업의 구조는 녹차의 원료인 생엽을 생산하는 농가와 생엽을 가공하는 가공 부문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으나 이들 부문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분업화하는 것이 통례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영세 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엽 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녹차 생산 농가의 생산구조는 생엽을 생산해서 가공 업체에 납품하거나 자가 생산 생엽을 원시적인 가공 방법으로 수가공해서 판매하는 영세 소농의 일반 농가와 생엽의 자가 생산은 물론 부족분을 수매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반자동 가공시설에 의해 가공한 것을 자영 시음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대량 판매처에 도매하는 중규모 농가, 그리고 생엽의 자가 생산은 물론 수매 및 수입품을 자동시설에 의해 가공해서 대량 소비처에 판매하거나 또는 수출하는 대규모 기업농의 직영 농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표 7). 여기에 사찰의 스님이 자가생산 생엽과 농가로부터 구입한 자연산 생엽을 재래식으로 수가공한 것을 자가 소비하거나 사찰의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는 특수한 생산 방식도 있다. 결국 녹차산업은 순수한 일반 농가와 기업적인 직영 농가,

표 7 녹차 생산 농가의 유형 및 구조적 특징

| 농 가 유 형 | 생 산 방 식 | 생산 및 기술 구조 |
|---------|--|--|
| 일 반 농 가 | ○ 생엽만 생산해서 가공업체에 판매 ○ 생엽생산+가내 수가공 판매 ○ 스님의 자가소비 자연산가공 여분판매 | ○ 영세소농의 조방적 생산 ○ 소규모의 집약적 생산 ○ 자가소비 위주의 생산 |
| 직 영 농 가 | ○ 생엽생산+수매가공 판매 ○ 생엽생산+수매가공+수입가공 판매 | ○ 중규모의 집약적 생산 ○ 대규모의 집약적 생산 |

그리고 사찰의 특수 생산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찰의 경우는 생산구조가 일반 농가와 유사하므로 일반 농가와 직영 농가로 양분할 수가 있다.

3.1. 지역간·농가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녹차 생산농가의 생산성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격차에 따른 수익성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농가의 수익성은 투입비용 보다도 토지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생산성 격차에 따른 수익성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우선 토지생산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보성군의 10a당 생엽 수확량은 772.9kg인데 비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108.0kg으로 극히 낮아 지역간의 토지생산성 격차

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형적인 입지조건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수확회수에 의한 것이다. 즉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비교적 평야지에서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회수 역시 3회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불리해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생을 위주로 하고 있어 수확회수 역시 상품의 가치가 가장 높은 생산초기 1회 정도 수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당 수확량은 낮으나 단위당 수취가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가간에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반 농가에 비해서 직영 농가의 토지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생

표 8 조사농가의 10a당 수익성, 1997

단위: 10a, 천원

| | 조수입 | 경영비 | 생산비 | 소득 | 순수익 | 소득률 (%) | 순수익률 (%) | 단위당 생산성 | | | 생엽 kg당 | | |
|---------|---------|-------|-----|-----|-------|---------|----------|-------------|-----------|----------|---------|---------|-------|
| | | | | | | | | 토지 (kg/10a) | 노동 (kg/인) | 자본 (원/원) | 수취가 (원) | 생산비 (원) | |
| 전체 (평균) | 1,286 | 351 | 704 | 935 | 582 | 72.7 | 45.2 | 393.0 | 32.7 | 1.83 | 3,272 | 1,792 | |
| 지역별 | 전남 (보성) | 1,073 | 391 | 689 | 682 | 384 | 63.5 | 35.8 | 772.9 | 61.5 | 1.56 | 1,338 | 891 |
| | 경남 (하동) | 1,446 | 320 | 716 | 1,126 | 730 | 77.9 | 50.5 | 108.0 | 9.3 | 2.02 | 13,388 | 6,629 |
| 유형별 | 일반 농가 | 1,131 | 299 | 701 | 832 | 430 | 73.5 | 38.1 | 320.5 | 28.9 | 1.62 | 3,530 | 2,183 |
| | 직영 농가 | 1,853 | 539 | 718 | 1,314 | 1,135 | 70.9 | 61.3 | 658.8 | 42.8 | 2.58 | 2,813 | 1,089 |
| 규모별 | 20단보 이하 | 903 | 227 | 728 | 676 | 175 | 74.8 | 19.4 | 289.3 | 25.3 | 1.24 | 3,120 | 2,518 |
| | 20~40단보 | 2,070 | 391 | 701 | 1,679 | 1,369 | 81.1 | 66.1 | 165.6 | 14.3 | 2.95 | 12,500 | 4,224 |
| | 40단보 이상 | 1,077 | 496 | 673 | 581 | 404 | 55.9 | 37.6 | 775.9 | 58.1 | 1.60 | 1,388 | 866 |

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단위당 투입 노동력의 큰 차이가 없어 토지생산성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생산성은 토지생산성과 단위당 수취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로는 단위당 수취가격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상남도 하동군이 수취가격 효과에 힘입어 자본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유형별로는 단위당 수취가격보다도 단위당 수확량이 높은 직영 농가가 단수 효과에 힘입어 자본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규모별로는 20단보 이하 농가와 40단보 이상 농가가 단수 효과가 큰데 반해서 20단보~40단보 농가는 단수 효과보다도 단위당 수취가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농가의 평균 10a당 수익성을 보면 10a당 조수입이 1,286천원으로 10a당 경영비와 생산비 351천원과 704천원을 제하면 10a당 소득 및 순수익은 각각 935천원과 582천원으로 소득률 72.7%와 순수익률 45.2%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10a당 소득 및 순수익이 각각 689천원과 384천원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1,126천원과 730천원에 비해서 각각 40%와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 보성군의 단위당 수익성이 경상남도 하동군에 비해서 낮은 것은 단위당 경영비 또는 생산비의 차이보다도 단위당 수확량과 단위당 수취가격의 차이가 큰데서 비롯된 결과다. 즉,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10a당 생엽 수확량이 772.9kg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108kg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높은데

비해서 kg당 수취가격은 1,338원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13,388원의 10분에 1에 지나지 않아 10a당 조수입은 경상남도 하동군 1,446천원 보다 26%나 낮은 1,073천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가유형별 또는 규모별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토지생산성 및 단위당 수취가격 격차에 따른 수익성 격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kg당 생산비는 10a당 생산비에 큰 차이가 없어 10a당 수확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토지생산성 격차에 따른 단위당 수확량 격차와 품질 격차에 의한 단위당 수취가격 격차는 단위당 수익성 격차를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3.2. 녹차 시장의 유통질서 문란

모든 제품이 생산지에서 완제품으로 상품화되어 소비지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유통경로를 걸치게 된다. 특히 녹차의 경우는 원료 생산이라는 생엽 생산과정과 생엽을 가공하는 제다과정 그리고 가공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판매과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결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 과정의 유통경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미 생산구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녹차 유통경로는 일부 생엽으로 판매하는 농가를 제외하면 생엽 생산자가 직접 가공해서 자기의 고유상표를 붙여 소비시

¹ 녹차 원료인 생엽은 통상 4차에 걸쳐서 수확을 하나 1번 차가 가장 질이 좋아 가격이 높고 그 외의 2번 차부터 4번 차까지는 질이 낮아 가격이 싼 티백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9 제다 업체별 1번차 품질 등급별 소매 가격, 1997

단위: 원/100g

| 품 목 | A 제다 | B 제다 | C 제다 | D 제다 | E 제다 | A /E |
|------|--------|--------|--------|--------|--------|-------|
| 1 등급 | 85,000 | 85,000 | 80,000 | 80,000 | 65,000 | 130.7 |
| 2 등급 | 60,000 | 45,000 | 46,000 | 45,000 | 38,000 | 157.9 |
| 3 등급 | 45,000 | 30,000 | 22,000 | 30,000 | 16,000 | 281.3 |

주: 녹차 생엽은 1년에 3~4차 채취하나 그 중에서 1번차임.

1번차 중에서도 채취일에 따라 생엽의 등급이 다름.

장에 직접 생산 판매하는 단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녹차 가격이 각 유통단계를 거쳐 자유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생산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표 9). 그 결과 제다업체의 녹차

100g당 소비자 가격을 상품별로 보면 가장 품질이 좋은 1등급의 경우 85,000원에서 65,000원에 이르기까지 생산업체에 따라서 같은 상품에도 무려 30.7%의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품질이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E제다의 경우 3등급이 100g에 16,000원인

표 10 녹차 1번차 품질별 생산 원가 및 도·소매가격, 1997

단위: 원/100g

| | | 우 전 | 세 작 | 중 작 | 대 작 | 평 균 |
|-------------|---------|--------|--------|--------|--------|--------|
| 전라남도 (A) | 생엽구입가 | 15,000 | 10,000 | 7,500 | 5,000 | 9,370 |
| | 가 공 비 | 729 | 729 | 729 | 729 | 729 |
| | 가공원가(a) | 15,729 | 10,729 | 8,229 | 5,729 | 10,099 |
| | 도매가격(b) | 30,000 | 15,000 | 10,000 | 6,000 | 15,250 |
| | 소매가격(c) | 65,000 | 38,000 | 19,000 | 11,000 | 33,250 |
| | (b)/(a) | 190.7 | 139.8 | 121.5 | 104.7 | 151.0 |
| | (c)/(a) | 413.2 | 354.2 | 230.9 | 192.0 | 329.2 |
| 경상남도 (B) | 생엽구입가 | 22,500 | 15,000 | 10,000 | 5,000 | 13,100 |
| | 가 공 비 | 1,701 | 1,701 | 1,701 | 1,701 | 1,701 |
| | 가공원가(a) | 24,201 | 16,701 | 11,701 | 6,701 | 14,801 |
| | 도매가격(b) | 45,000 | 30,000 | 15,000 | 9,000 | 24,750 |
| | 소매가격(c) | 82,500 | 52,500 | 33,750 | 20,000 | 47,188 |
| | (b)/(a) | 186.0 | 179.6 | 128.2 | 134.3 | 166.9 |
| | (c)/(a) | 340.9 | 314.4 | 288.5 | 298.5 | 318.2 |
| (c)/(b) | 183.3 | 175.0 | 225.0 | 222.2 | 190.7 | |

주: - 녹차 100g 생산하는데 생엽 500g이 필요함.

- 경상남도 하동군의 가공비가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수가공 비중이 높기 때문임.

- 1번차의 채취일별 품질 명칭은 지역에 따라 또는 가공업체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우전(곡우(4월20일)전·후), 세작(입하(5월5일)전·후)

중작(세작(5월15일) 이후), 대작(끝물로 5월하순 이후)

데 비해서 A제다는 45,000원으로 무려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다업체에 따라 가격 격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녹차 가격이 생산업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녹차 원료인 생엽 가격을 비롯해 가공원가 그리고 판매 마진이 제다 업체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표 10).

우선 녹차 100g당 가공원가에 대한 도매가격을 평균치로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10,099원과 15,250원으로 1.5배인데 비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14,801원과 24,750원으로 1.7배를 나타내고 있어 50%와 70%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공원가에 대한 소매가격은 전라남도 보성군이 3.3배, 경상남도 하동군이 3.2배를 나타내고 있어 무려 3배 이상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공원가에 대한 소매가격의 마진율이 높은 것은 도매가격에 대한 소매가격 마진율이 각각 120%와 90%로 높은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특히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상품의 등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고급품의 마진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생엽 구입가격을 비롯해 가공비는 경상남도 하동군이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높아 가공원가는 물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에 가격 격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지역간의 가격 격차는 상품의 등급이 높을수록 생엽 가격과 가공비의 차이로 가공원가 및 도매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매가격은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도·소매 마진율이 등급이 낮을수록 작은데 비해서 경상남도 하동군

은 반대로 등급이 낮을수록 높아 지역간의 격차는 오히려 등급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 정부 지원정책의 비효율성

정부는 녹차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녹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다시설의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다원 조성을 비롯해 생산기반 및 제다시설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 사업비는 20ha를 기준으로 다원 조성비 14.4백만 원과 생산기반 281백만 원 그리고 제다 시설비 209.6백만 원 등, 총 505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는 표준 사업비의 70%인 353백만 원으로 되어 있다(표 11). 또한 지원대상 지역은 녹차 주산지 중에서 기업농이 소재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역시 지역 또는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균등액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원사업 지역과 사업량 및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면, 현재 정부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등, 2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녹차 재배에 적합한 지역은 제주도를 들 수가 있다. 물론 정부지원 사업이 신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으나 사업 내용이 신규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적지를 사업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녹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면에서 생각할 때

표 11 녹차 지원 사업 세부 내역 (20ha 기준)

단위: 백만원

| | 단 위 | 사업량 | 사업비 | 시 설 내 용 |
|--------------------|-------|-----|-------|--|
| 다 원 조 성 생 산 기 반 | ha | 1 | 14.4 | ○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 등. ○ 관수시설(관정, 스프링), 방상기, 전정기, 자동채엽기 등 ○ 건축(전기, 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 | ha | 20 | 281.0 | |
| 제 다 시 설 | 50평/동 | 1 | 209.6 | ○ 기기(급여기, 증기, 냉각기, 증엽기(증엽로베어, 증엽 투입, 증엽개량), 조유기, 유념기, 증유기, 건조기, 포장기 등 ○ 저온저장창고 30평 1동 |
| 표 준 사 업 비 합 계 | | | 505 | ○ 개소당 정부지원단가는 표준단가의 70% 적용 |
| 정 부 지 원 사 업 비 | | | 353 | |

자료: 농림부, 원예특작국 특작과.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녹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의 지역지배 또는 사업지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다.

한편 사업량(개소) 및 사업규모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1996년 현재 전라남도의 재배면적은 465ha인데 비해서 경상남도는 256ha로 전라남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재배 농가수는 전라남도가 424호인데 비해서 경상남도는 746호로 전라남도 보다 무려 7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호당 재배 면적은 전라남도가 1.1ha인데 비해서 경상남도는 0.3ha로 전라남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자연적인 입지조건 때문에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사업 효율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져 사업규모를 상대적으로 축

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지원사업 내용의 불합리성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1개 사업당 20ha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체 지원금에 대한 부문별 구성비로 보면 다원 조성이 2.9%, 생산기반이 55.6%, 그리고 제다시설이 41.5%로 되어 있다. 결국 지원 내용은 생산기반 조성과 제다시설 설치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으며 그 비중은 전자가 58.5%인데 비해서 후자는 41.5%로 생산기반 조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부문과 가공부문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제다공장 가공현황과 해당 조합의 가공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다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표 12). 즉, 정부지원 영농조합법인 A 조합이 소재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전체 가공량은 직영농가 가공분 219톤과 일반농가 가공분 14톤을 합친 233톤이다. 또한 직영농가의 가공량 219톤은 자체 가공

표 12 정부 지원 지역 및 영농 조합의 녹차 가공 현황, 1997

| 총 가공량 (M_T) | 지원 조합 해당 지역의 가공 현황 | | | | | 농가 자체 가공 | 지원 조합의 가공 실적(M_T) | | | |
|------------------------------|---------------------------|-----|-------|-------------|----------------|----------------|------------------------------|-----------------|-----------------|----------------|
| | 직영 농가 가공량(M_T) | | | | | | 조합명 | 가공 능력 (a) | 가공 실적 (b) | (b)/(a) (%) |
| | 자가분 | 수매분 | 합계(a) | 가공능력 (b) | (a)/(b) (%) | | | | | |
| 233 | 166 | 53 | 219 | 630 | 34.8 | 14 | A 조합 | 160 | 81 | 50.6 |
| 27 | 7 | 15 | 22 | 400 | 5.5 | 5 | B 조합 | 100 | 2.0 | 2.0 |
| 6 | 3 | 2 | 5 | 100 | 5.0 | 1 | C 조합 | 100 | 0.3 | 0.3 |

분 166톤과 일반 농가로부터 수매한 53톤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직영농가 가공능력은 630톤에 이르고 있어 실질 가공률은 34.8%에 지나지 않아 가공시설이 과다함을 알 수가 있다. 그 결과 A 조합도 가공능력 160톤에 가공실적은 81톤에 지나지 않아 실질 가공률은 50.6%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B 조합 또는 C 조합의 실질 가공률은 A 조합 보다도 더욱 낮아 가공량에 비해서 가공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이들 조합은 최근에 설립된 조합으로 생엽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조합이 소재하는 지역의 직영농가 가동률도 5%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제다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 녹차산업의 발전방향

4.1. 적정가격 설정을 통한 소비량 확대

녹차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같은 품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는 산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보다는 자가판매 또는 직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개인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자가 상품에 대한 과대 평가와 공급 조절을 통한 가치 증대가 가능하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단위당 수확량이 낮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평야지 집단화 보다는 경사지에 분산된 다원과 자생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수확 역시 1번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단위당 수확량이 낮아 회소가 치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하고 있다.

조사 농가의 녹차 100g당 생산 원가를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생산원가는 생엽 생산비 2,563원에 가공비 729원을 합친 3,292원으로 나타났는데 비해서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은 각각 100g당 15,250원과 33,250원으로 생산비의 4.6배와 10배로 나타나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표 13). 이와 같은 경향은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생엽 100g당

표 13 1번차 100g당 생산비 대비 도·소매 가격, 1997

단위: 원, 배

| | 녹차 원가 계산 | | | 도·소매 가격 | | (B) / (A) | (C) / (A) | (D) / (A) | (C) / (B) | (D) / (A) | |
|-----------|----------|----------|-----------|-----------------|-----------------|-----------------|-----------------|-----------------|-----------------|-----------------|-----------------|
| | 생산 원가 | | | 제품 원가 (B) | 도매 가격 (C) | | | | | | 소매 가격 (D) |
| | 생업 원가 | 가공 원가 | 합계 (A) | | | | | | | | |
| 전남(보성)(a) | 2,563 | 729 | 3,292 | 10,099 | 15,250 | 33,250 | 3.1 | 4.6 | 10.1 | 1.5 | 3.3 |
| 경남(하동)(b) | 3,315 | 1,701 | 5,016 | 14,801 | 24,750 | 47,188 | 3.0 | 5.0 | 9.4 | 1.7 | 3.2 |
| (b)/(a) | 1.3 | 2.3 | 1.5 | 1.5 | 1.6 | 1.4 | - | - | - | - | - |

주: 녹차 100g 생산에는 생업 500g이 소요됨.
 생산원가는 생업 생산비에 가공비를 가산한 가격임.
 제품원가는 생업을 구입해서 가공한 가격임.

생산 원가가 3,315원, 가공비 1,701원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각각 1.3배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녹차 100g당 생산 원가는 5,016원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1.5배나 높았다. 또한 녹차 100g당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도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각각 1.6배와 1.4배 높은 24,750원과 47,188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녹차 100g당 생산 원가에 대한 도·소매 마진율은 각각 5.0배와 9.4배로 전라남도 보성군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마진액의 절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생산자의 독과점적인 가격 결정에 의한 과도한 초과 이윤은 소비자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한 불가피해 녹

차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녹차 소비량 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로 녹차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녹차 시장의 질서확립을 통한 적정 가격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고 또한 대중화되어 있는 커피와 녹차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커피의 100g당 소매 가격이 3,500원인데 비해서 녹차의 평균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은 각각 20,000원과 40,000원으로 커피의 약 5.7배와 1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표 14). 그러나 녹차의 생산 원가를 커피와 비교해 보면 20% 정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녹차 생산 원가에 마진율을

표 14 녹차 품목별 가격 대 커피 가격 비교, 1997

단위: 원/100g, 배

| | 품 목 별 가 격(1번차) | | | | | 생 산 원 가 (B) | 커피 (C) | (A) / (C) | (B) / (C) |
|------|----------------|--------|--------|--------|------------|-------------------|-----------|-----------------|-----------------|
| | 우 전 | 세 작 | 중 작 | 대 작 | 평 균 (A) | | | | |
| 제품원가 | 19,965 | 13,715 | 9,965 | 6,215 | 12,450 | 4,154 | 3,500 | 3.6 | 1.2 |
| 도매가격 | 37,500 | 22,500 | 12,500 | 7,500 | 20,000 | | | | |
| 소매가격 | 73,700 | 45,300 | 26,400 | 15,500 | 40,000 | | | | |

배로 해도 커피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는 100g당 녹차 가격이 5,156원으로 커피 가격 7,507원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량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로 생산농가는 물론 녹차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녹차 가격을 적정 수준까지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엽 가격은 물론 녹차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산지에서 공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생산자 역시 적정 선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일부 지역을 비롯해 일부 농가에서는 희소가치에 의한 가격 상승 또는 현재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또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농가가 시장 지배와 동시에 가격 형성을 지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가판매를 통한 막대한 판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부 생산자의 비도덕적인 폭리를 견제하고 적정 가격설정을 통한 소비량 증대를 위해서는 수입 차의 할당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수입관세를 완화함으로써 수입량 증대를 통한 적정 가격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녹차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녹차를 공급하기 위해 수입 차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수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생산 농가에는 생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자유화에 따른 녹차 수입 할당량을 연간 4.7톤에 관세율은 40%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70.7%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표 15). 그러나 현재와 같은 높은 관세로서는 수입이 불가능해 국내 가격을 적정 선으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서 일본의 녹차를 수입할 경우 100g에 5,156원인 것을 현행의 수입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원가가 34,581원으로 여기에 수입 부대비용과 일정의 마진을 감안할 때 수입원가는 더욱 높아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녹차 가격의 적정수준 설정을 통한 소

표 15 한국과 일본의 녹차(1번차)가격 및 수입가격 비교

단위: 원/100g

| | 생산자가격 | 소비자가격 | 비 고 |
|------|--------|--------|--|
| 한 국 | 4,154 | 40,219 | - 수입 할당량은 연간 4.7톤으로 총 수입량의 50%. - 관세율은 40%. |
| 일 본 | 1,354 | 5,156 | |
| 수입관세 | 570.7% | 570.7% | |
| 수입원가 | 9,081 | 34,581 | |

주: 대일환율 ₩900/¥100

한국의 생산자 가격은 1997년 생산원가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통계」, 농림수산성, 1996.

표 16 조사 농가의 10a당 생엽 수확량 수준별 농가 분포, 1997

| | 100kg 이하 | 100~300kg | 300~500kg | 500~700kg | 700kg 이상 | 평 균 |
|----------|----------|-----------|-----------|-----------|----------|-------|
| 평균단수(kg) | 51.6 | 192.0 | 347.8 | 666.3 | 831.6 | 467.0 |
| 수확회수(회) | 1 | 2.5 | 3.3 | 3.5 | 3.7 | 3.0 |
| 규 모(10a) | 13.2 | 11.5 | 11.0 | 26.8 | 57.4 | 28.4 |
| 농 가 수(호) | 5 | 6 | 6 | 4 | 10 | 31 |
| 구 성 비(%) | 16.1 | 19.4 | 19.4 | 12.9 | 32.2 | 100.0 |
| 누 계(%) | 16.1 | 35.5 | 54.9 | 67.8 | 100.0 | - |

비량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 할당량은 물론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4.2. 토지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농작 가격의 적정수준 설정을 통한 소비량 확대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당 생산량 증대는 물론 투입비용의 절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우선 토지생산성을 조사농가의 10a당 생엽 수확량 수준별 농가호수 분포로 보면 총 농가호수 31호 중에서 10a당 생엽 수확량이 전국 평균 수확량 500kg을 상회하는 농가는 14호로 45%인데 비해서 55%의 17호는 전국 평균 수확량에 미치지 못해 과반수 이상 농가

의 토지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가 있다(표 16). 특히 10a당 생엽 수확량이 전국 평균 수확량의 절반 수준인 300kg 이하의 농가가 전체 조사농가의 36%인 11호에 이르고 있어 토지생산성이 낮은 농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10a당 생엽 수확량이 낮은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의 자연적인 입지 조건을 비롯해 생산기반 및 재배기술 그리고 품종 등 제반 생산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데 그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수확회수가 절대적으로 작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10a당 생엽 수확량 수준이 낮을수록 수확회수가 작아 단위당 수확회수와 단위당 수확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단위당 생엽 수확량

표 17 조사 농가의 수확 단계별 생엽 수확량 및 가격, 1997

| 수 확 회 수 | | 1번차 | 2번차 | 3번차 | 4번차 | 합 계 (평균) |
|-------------|----------|-----------|----------|-----------|------------|-------------|
| 수 확 시 기 | | 4월중순-5월초순 | 6월초순-6월말 | 7월중순-8월초순 | 9월초순-10월초순 | |
| 전 남 (보성) | 수확량(10a) | 84.3 | 269.0 | 272.1 | 147.6 | 772.9 |
| | 구성비(%) | (10.9) | (34.8) | (35.2) | (19.1) | (100) |
| | 가격(원/kg) | 6,719 | 743 | 728 | 736 | 1,388 |
| 경 남 (하동) | 수확량(10a) | 11.0 | 97.0 | - | - | 108.0 |
| | 구성비(%) | (10.2) | (89.8) | - | - | (100) |
| | 가격(원/kg) | 20,000 | 14,500 | - | - | 15,055 |

주: 경남 하동의 2번차는 1번차의 끝물예 준함.

증대를 통한 단위당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단위당 수확회수의 증대라 하겠다.

한편 토지생산성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 하동군의 10a당 생엽 수확량이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이와 같은 결과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서 수확회수가 반이나 작을 뿐만 아니라 다원이 경사가 급한 지역에 조성되어 있어 재식밀도가 극히 낮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2번차부터는 단위당 수확량은 많으나 단위당 수취가격이 낮아 수익성 면에서 불리해 수확을 기피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그 외에도 경사지 자연산의 경우 차 나무가 밤 나무와 같이 있어 밤 나무 소독으로 인해 수확이 불가능한 것도 토지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토지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평야지로 다원을 이전함과 동시에 신규조성에 의한 수종갱신 및 밀식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녹차 품종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광양군과 구례군을 제외하면 야생

재래종이 없는데 비해서 경상남도는 하동군을 비롯해 산청군 등 대다수의 지역에서 야생 재래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령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역시 큰 것이 현실이다(표 18).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경사지 다원은 평야지로의 이전을 통한 다원의 신규조성은 물론 품종개량 및 수종갱신과 동시에 재식밀도 증대를 통한 토지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조성된 다원의 경우 수령이 높은 나무는 심경정지 작업을 통해 품질 향상과 동시에 수확량 증대를 기해야 한다.

한편 녹차 원료인 생엽의 가격은 채엽시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적 수확시기에 수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다원의 포장 비배관리는 물론 병충해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표 19). 즉, 1번차 수확의 경우 대개 3-4일 간격으로 20여일(4월 20일 전후-5월 10일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1일째와 15일째 수확한 차의 가격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품질 향상을 통한 수취가격 증대를 위해서는 최적 수확시기에 수확량을 높이는 방

표 18 지역별 녹차 품종별 재배 실태, 1993

| 지 역 | 품 종 명 | 면 적(ha) | 생산량(톤) | 10a당 수량(kg) |
|--------------|-----------|---------|--------|-------------|
| 광주: 한국제다외 | 야부기다, 재래종 | 27 | 14 | 51.9 |
| 보성: 대한다원외 | 베니호마레 | 180 | 86 | 47.8 |
| 강진, 해남: 장원산업 | 야부기다 | 106 | 140 | 132.1 |
| 광양, 구례 | 재래종(야생) | 63 | 5 | 7.9 |
| 제주도: 서광, 도순 | 야부기다 | 112 | 305 | 272.3 |
| 경남: 화계 | 재래종(야생) | 56 | 19 | 33.9 |
| 합 계 | | 546 | 569 | 104.2 |

자료: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보성차시험장 「차 시험연구보고서」, 제1권, 1993.

표 19 조사 농가의 1번차 생엽 채취 일별 kg당 수취 가격, 1997

단위: 원/kg

| | 1일차 | 4일차 | 7일차 | 11일차 | 15일차 |
|---------|--------|--------|--------|--------|--------|
| 전 남(보성)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7,000 |
| 경 남(하동) | 45,000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주: 녹차 원료는 주로 1번차 채취시 15일에서 20일 간에 걸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함.

향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포장의 비배관리는 물론 병충해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4.3.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녹차산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민간 부문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노력 역시 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홍차 유사품 사건으로 침체된 녹차 산업을 1969년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나라에서 녹차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는 1960년대 홍차 붐이 일던 때라고 하겠다. 즉 홍차와 녹차는 같은 원료로 단지 제조 과정이 다를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 홍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녹차 보급도 동시에 확대되어 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홍차 과잉 수요는 공급 부족에 따른 유사품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홍차 수요를 커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커피 수요는 크게 증가한데 반해서 홍차와 녹차는 감소내지는 정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1969년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에 470ha에 이르는 다원을 조성했으나 홍차에 대한 이미지 상실로 수요가 없어 폐원이 속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홍차와 녹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수의 소규모 직영업체가 생산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반 농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비롯해 생산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제다시설 등 정부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생산농가의 독과점적인 가격 결정은 소비자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일부 소수 부유층만이 혜택을 누릴뿐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녹차 산업의 발전을 기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녹차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녹차 수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차는 기호음료 이전에 건강음료로 판단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의 하나라고 하겠다.

한편 녹차가격 적정수준 설정에 따른 가격 하락은 생산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비롯해 기계화 등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정책이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산기반 정비는 경사지 다원의 평야지 이전은 물론 수령이 노령화되어 있거

나 품종이 잡종화되어 있는 기존의 다원을 신품종으로의 품종개량 및 수종갱신을 비롯해 재식거리의 규격화 등 기계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정부의 정책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미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현행 지원사업은 생산기반 보다도 과잉 상태에 있는 제다시설에 중복 투자하고 있어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정부의 지원자금은 다원의 신규조성과 생산기반 정비, 그리고 기계화 등 생산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문에 지원함으로써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자금의 사업내용은 물론 상환기간 및 이자율 또한 녹차 수익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통계자료의 정비와 시험연구의 강화가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녹차에 관한 통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 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통계도 조사방법이 통계방식에 의해서 조사하기 보다는 현지 실무담당 기관이 설문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특히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 품종의 품종별 또는 수령별 면적을 비롯해 재식밀도 등 제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통계기관을 이용해 이들의 통계자료를 조사 정리함으로써 금후 생산기반 정비는 물론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녹차에 관한 연구는 유일하게 전

라남도 농촌진흥원산하 보성차시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은 물론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녹차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연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5. 결론

녹차 수요는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음료로의 인식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내 생산량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어 수입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차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차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확회수 감소에 따른 단위당 수확량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보성군이 평야지에서 집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생산성이 높는데 반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은 지리적인 입지조건 때문에 경사지에 자연산을 위주로 조방적인 생산을 하고 있어 토지생산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유형별로는 일반 농가의 경우 규모가 적고 토지생산성이 낮아 수익성이 낮는데 반해서 기업적인 직영 농가는 규모도 클뿐만 아니라 토지생산성 역시 높아 수익성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생산량 증대는 물론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생산성 증대

와 더불어 경영규모 확대 및 기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녹차는 생엽 생산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해 가격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차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생산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자가 생산물에 대한 과대평가와 높은 마진율로 생산자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녹차 수요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소수층에 한정되어 있어 수요확대를 통한 생산량 확대를 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량 확대를 통한 생산량 확대로 녹차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출입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공급량 확대로 녹차 가격의 인하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적정가격의 설정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녹차 가격의 인하와 적정가격 설정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비롯해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화 사업 등 제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

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재편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장기적인 수급 계획에 의한 생산기반 정비 및 수종 갱신을 위해서는 품종별 또는 수령별 통계자료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신기술의 도입은 물론 신품종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농림부. 각연도. 「농림업 주요 통계」.
- 보건복지부. 각연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
- 농수축산신문. 각연도. 「한국 식품 연감」.
- 전라남도 도청. 1995. 5. 「전통 차 확대 재배 방안」.
-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보성 차 시험장. 1993~1995. 「차 시험 연구 보고」, 제1권~제3권.
- 農林水産省. 各年度. 「ポケット農林水産統計」.
- 増田公夫. 1980. 3. 「緑茶 流通における産地市場の展開と農協共販」, 農林問題研究, 第58號, 第16卷, 第1號.